

텃밭 광주서 민주 당권 경쟁 '본격화'

이재명·강병원·김민석 등 방문
통렬 반성·미래 비전 제시 주력
민심 선점, 지지세 확산 쉼법



10일 광주시 서구 5·18 기념공원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 걸음'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 텃밭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이날 국회 입성 후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이 의원은 5·18 기념공원 내 원형광장에서 시작해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며 무각사 주변을 산책하는 '위로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위로걸음' 행사는 이 의원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지난달 인천 계양산 둘레길에서 열린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7일 국회 입성 후 첫 지방일정이어서 본격적인 당권도전 행보라는 분석

이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민심을 먼저 끌어안음으로써 다른 당권주자들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안정적으로 굳히겠다는 의지로 임한

다.

이 의원 측은 "광주는 민주당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평소 이 의원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사회에 눈을 뜨게 됐으면서

광주를 자신의 '사회적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음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글을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

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강병원 의원 역시 이날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 광주지역 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과 만났다.

강 의원은 민주당의 혁신과 부활을 위한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4일에는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구을)이 광주를 방문한다.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주 투표율에 대한 반성과 호남 발전의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광주시당을 찾은 이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의 6·1 지방선거 '37.7%' 투표율은 민주당에 보내는 시민들의 경고로 받아들인다"며 "호남인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을 살펴봐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날 김민석 의원(3선·서울 영등포 을)도 당 대표 출마선언후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소탐대실의 편익주의, 관성적 편익주의를 혁파하겠다"며 호남의 지지와 역할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어대명' (아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에 대해서도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민' (아차피 대표는 민주당을 살릴 사람)이다. 대세론 역시 대안부재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러 면에서 볼 때 어려울 때 대안은 김민석"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고령화·인구감소 '관계인구' 주목해야"

농경연, 농산어촌마을 패널조사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관계인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총량은 정체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구 유출입이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지역 거주자 등 지역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관계인구'의 등장은 농산어촌 마을을 변화시키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한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사업' 2년차 연구에서 나왔다.

이번 연구는 전국 농산어촌 102개 마을을 대상으로 변화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주민등록 주소

지 변경을 하지 않은 채 농산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 등 관계인구의 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인구 등을 활용해 마을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패널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농산어촌 인구 총량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고령화가 심화됐지만 사회적 인구 유출입이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변화에 내적 역동성이 엿보였다. 특히 두 지역 거주자 등 소위 '관계인구'가 등장해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연구 대상이 된 102개 농산어촌 마을에는 평균 77.4호가 모여 살고 있었으며, 이중 5~6호는 비상주 가구였다. 구성원 수는 호당 1.9명, 고령화율은 62.5%에 달했다.

하지만 자연 여건이 양호한 마을일수록 전

입가가 많았고, 이중 12%는 전입신고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농산어촌 패널 마을 중에는 마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고,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으며 이중 28.1%는 농산어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점에서 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할 경우 농산어촌 마을의 소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농경연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공간 혁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차량의 교행, 주차장, 방문객 등을 위한 시설, 주택이나 도농교류시설 등 마을 인프라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미래 지향적 공간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관계인구까지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마을 인프라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선우 기자



김경만 양부남 이남재 천정배

민주당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 경선 가닥

김경만·양부남·이남재·천정배
1차 컷오프 후 27일까지 선출

양향자 의원(무소속)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경선 방식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지난 달 22~24일 서구를 지역위원장 공모를 받고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공모 결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경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등 4명이 응모했다.

서구청은 양 의원이 지난해 보좌관 성 추문이 불거져 탈당한 뒤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민주당과는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복당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2년 뒤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졌다. 민주당은 면접 등을 통해 자동응답전화(ARS) 투표를 통해 27일까지 선출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25th Muan Lotus Festival

2022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선정

제 25회
무안 연꽃축제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회산백련지

2022. 07.21(목) ▶ 07.24(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